

‘氣血’과 ‘血氣’의 인체론적 의미에 대한 소고

¹김남일, ²박준규, ³한창현

¹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실, ²본디울서봉한의원, ³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과학연구부

A Study on the physical meaning of ‘gihyeol(氣血)’ and ‘hyeolgi(血氣)’

¹Kim Namil, ²PARK Jun-gyu, ³HAN Chang-hyun

¹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²Bondiol Seobong Korean Medicine Clinic

³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In East Asian medicine, ‘gihyeol(氣血)’ and ‘hyeolgi(血氣)’ are basic terms that can be found everywhere. However, despite its importance,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the terms. In this paper, we tried to distinguish between ‘gihyeol(氣血)’ and ‘hyeolgi(血氣)’ and looked at actual clinical examples that were judged to be consistent with this idea. The terms of East Asian medicine reflect its view of the human body and the origin of this view of the body can be seen as Han’s theory of sensitivity. In addition, in East Asian medicine, the human body was understood as having a dualistic structure. Based on the theories of Asian medicine, energy can be understood as qi and blood. Therefore, ‘gihyeol(氣血)’ and ‘hyeolgi(血氣)’ are not similar or the same terms, but can be seen as terms to distinguish different internal flows of the human body. This organic view of the human body leads to the ‘Hyeonggiron(形氣論)’ of ‘Donguibogam’, and this ‘Hyeonggiron(形氣論)’ leads to the ‘Hyeonggiron(形氣論)’ of Hyungsang Medicine.

Key words : Donguibogam, Hyeongshang theory, gihyeol(氣血), hyeolgi(血氣), Hyeonggiron(形氣論), East Asian Medicine, Korean Medicine

1. 들어가는 말

한의학에서 ‘氣血’은 생리·병리·진단·본초·방제·침구 등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기초 용어이다. ‘氣血’의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氣와 血을 통틀어 말함¹⁾’이라고 되어 있다. 별로 새롭지 않은 이 정의에서 필자는 새로운 생각의 불씨를 찾았다.

한의학 용어는 (음양·기미·영위·장부·경락 등과 같이) 이질적인 두 가지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다.

이는 한의학적 인체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 그런데 이 인체관의 유래를 찾다보면 『黃帝內經』을 거슬러 漢代의 대표적 사상인 황로사상까지 이르게 된다³⁾. 그리고 이 황로사상에서 『黃帝內經』으로 이어지는 기본 관념이 ‘感應⁴⁾’이다. 이 ‘感應論’의 영향을 받은 『黃帝內經』은 기일 원론적 관점의 유기체적인 인체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기’는 육체의 ‘形’과 정신의 ‘神’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形神論’으로 완성된다. 이 ‘形神’ 개념은 『東醫寶鑑』에서 ‘形氣論’으로 이어지고, 다시 형상의학에서 ‘形象論’으로 이어진다.⁵⁾

결론적으로 이렇게 몸이 이질적인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인체관과 ‘氣血’의 개념이 잘 맞아떨어진다. 이 인체관에

접수 ▶ 2022년 11월 15일 수정 ▶ 2022년 11월 23일 채택 ▶ 2022년 11월 24일
교신저자 ▶ 한창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과학연구부
Tel : 042-868-9498 E-mail : chhan@kiom.re.kr

- 1)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2』. 서울:慶熙大學校 出版局. 1999:240.
- 2) 반대로 그런 인체관을 가진 세계에서 쓰이던 용어와 생각들이 한의학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 3) 김희정. 『몸·국가·우주 하나를 꿈꾸다』. 서울:공리출판. 2010:15. : “황로사상의 의의는 한대가 중국문명 전체에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 고대의 여러 사상과 신앙전통을 황제(黃帝)와 노자(老子)의 이름 아래 융합한 황로사상은 여러 국가의 다양한 문화가 서로 경쟁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은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제(齊)나라 직하(稷下)를 중심으로 발아하여, 대일통(大一統)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시대를 거치면서 발전하고, 실질적으로 중국이라는 단일 문화권을 형성한 한제국 초기의 국가이념이자 세계관이었다.”
- 4) 김희정. 위의 책. p. 148.
- 5) 박준규. 「형상의학의 인체관」. 大韓傳統韓醫學會誌. 2019;20(1):310.

따라 인체를 크게 두 구조로 나누면 장부와 경락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부와 경락을 실제로 오가는 물질이 필요하다. 그것을 ‘氣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장부 기원의 물질과 경락 기원의 물질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즉 ‘氣血’을 둘로 나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장부 기원의 물질은 ‘血’, 경락 기원의 물질은 ‘氣’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氣’와 ‘血’은 혼재된 형태로 흐를 것이다. 그러나 장부에서 경락 방향으로 흐르는 물질과 경락에서 장부 방향으로 흐르는 물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임의로 ‘장부→경락’ 방향성의 물질은 ‘血氣’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경락→장부’ 방향성의 물질은 ‘氣血’이라고 표현해 보자.⁶⁾

이제 (필자와 같은 방법이든 다른 방법이든) ‘氣血’과 ‘血氣’를 구분한 흔적을 찾아 비교해봐야 한다. 하지만 그런 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거의 유일하게 芝山은 ‘氣血’과 ‘血氣’를 이론적으로 구분하고 실제 임상에 활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 논문으로 조장수의 「氣血과 血氣에 대한 形象醫學의 考察」⁷⁾이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을 바탕으로 ‘氣血’과 ‘血氣’의 이론과 임상례를 정리하여 『芝山形象醫學概論』⁸⁾에 실고 있었다.

이에 필자는 한의학적 인체관에 따라 ‘氣血’과 ‘血氣’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芝山의 이론 및 임상례와 비교하여 그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 왜 ‘혈’이 아니고 ‘氣血’ 혹은 ‘血氣’인가?

같은 사물 혹은 현상을 보더라도 인식하는 주체의 세계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표현된다. 해부학에서도 마찬가지다. 해부를 통해 몸을 표현함에 있어 서양에서는 근육을 위주로 표현했지만, 중국 의사들은 근육에 무관심했다⁹⁾. 그것은 ‘해부학적 시선’이 달랐기 때문이다. ‘氣血’의

개념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해부학적 관찰로는 얻을 수 없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락에 있다는 말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서양의학에는 장부 개념도 아예 없다고 생각한다. 장기 개념은 있을지 몰라도 장부 개념은 없다. 그러므로 오장간에, 혹은 육부간에 상생·상극 관계는 물론이고 장과 부간의 표리관계 같은 개념도 있을 수 없다. 만약 현대의학처럼 해부학적인 개별 장기로 본다면 한의학 고유의 유기체적인 몸을 연상하기 어렵다. 특히 『內經』의 오장-오체, 오부-오관의 관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¹⁰⁾ 결국 몸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다시 말해 인체관의 차이, 더 나아가 세계관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氣血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인체를 순환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피다. 이것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관찰하면 알 수 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왜 ‘氣血’ 혹은 ‘血氣’라고 하는 걸까? 이 역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感應論’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황로사상과 『內經』의 ‘感應論’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內經』의 ‘사람은 천지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人與天地相參’은 신비주의적인 ‘천인합일론’이나 ‘천인감응론’과는 원칙적으로 다르게 봐야 한다. 후자는 하늘에 의지가 있어 사람의 일을 주재한다고 인정했지만, 『內經』은 이러한 점을 부인하고 있기¹¹⁾ 때문이다. 『內經』은 귀신과 미신을 부인한다는 전제하에 사람은 자연계의 산물이고, 자연계와 공통의 근원을 가지며 함께 음양오행의 법칙에 지배받는다는 사실을 이론적인 근거로 삼았다.¹²⁾ 물론 현대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과학성이 다소 모자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 관점은 물질세계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과학적 합리성을 추구한 것은 분명하다.

『內經』의 ‘人與天地相參’에 따라 인체의 생성 원리를 간단하게 말한다면, 인체는 천기와 지기가 섞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內經』은 이러한 사고의 과정을 통해 ‘形神論’

6) 이렇게 도식화하는 것이 한의학의 심오한 이치를 축소시키거나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학사를 볼 때 간단한 공식은 활용의 폭을 넓히고 또는 새로운 원리를 창출해내는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7) 조장수. 「氣血과 血氣에 대한 形象醫學的 考察」. 대한형상의학회지. 2005;6(1):7-72.

8) 대한형상의학회. 『芝山形象醫學概論』. 서울:지산출판사. 2017.

9) 구리야마 시게히사 지음, 정우진, 권상욱 옮김. 『몸의 노래』. 서울:이음. 2013:118.

10) 박준규. 「형상의학의 인체관」 大韓傳統韓醫學會誌. 2019;20(1):296.

11) 유장림 지음, 조남호, 정우진, 김교빈, 성근제 옮김. 『講說黃帝內經1』. 서울:청흥. 2009:279.

12) 유장림 지음. 위의 책. p. 279.

을 완성했고¹³⁾, 이를 계승한 동의보감은 ‘形氣論’을 완성했다. 그리고 芝山은 이것을 ‘形象論’으로 거듭나게 했다.¹⁴⁾

이렇게 변화·발전해온 이론의 핵심은 ‘인체는 천기와 지기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관점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한의학의 양대 구조인 장부와 경락에 연결해보면 ‘천기=경락, 지기=장부’ 이렇게 짝지을 수 있을 것이다.¹⁵⁾

그렇다면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가 살아 움직이는 몸을 생각해보자. 장부와 경락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를 가능케 하는 물질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장부와 경락을 오가는 물질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앞서 언급한 ‘氣血’을 떠올릴 수 있다. 좀 더 나아가면 장부 기원의 물질과 경락 기원의 물질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장부=혈, 경락=기’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또 ‘장부에서 경락’ 방향과 ‘경락에서 장부’ 방향으로의 두 가지 흐름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장부→경락’의 흐름에 있는 물질을 ‘血氣’, ‘경락→장부’의 흐름에 있는 물질을 ‘氣血’, 이렇게 나누어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장부·경락과 기혈·혈기의 관계

3. 芝山의 ‘氣血’과 ‘血氣’ 이론

이렇게 보면 ‘氣血’과 ‘血氣’는 분명 다르게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氣血’과 ‘血氣’를 구분한 문헌을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임상에까지 활용한 의자

는 芝山이 거의 유일했다. 芝山의 이론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⁶⁾

첫째, 氣血은 氣先血後하고, 血氣는 血先氣後를 뜻한다. 芝山은 “봄에는 봄기운으로 인하여 血이 부풀어서 위로 올라간다. 氣는 이를 뒤 따라간다. 그래서 血氣라 표현한 것이다. ... 가을에는 氣가 下降하고 피가 이를 뒤따라 내려간다. 그래서 氣血이라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여 血氣란 봄기운으로 인해 血이 먼저 올라가고 氣가 뒤따르는 것을 말하고, 氣血이란 가을기운으로 인해 氣가 먼저 내려가고 血이 뒤따르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둘째, 春夏之象을 血氣라 하고, 秋冬之象은 氣血이라 한다.”고 하여 春夏之象은 陽氣가 잘 오르는 象을 의미하며 秋冬之象은 陽氣가 잘 내리는 象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셋째, 血氣는 위로 올라가고[上升], 氣血은 아래로 내려간다[下降].

넷째, 氣血은 팔의 浮沈運動, 血氣는 다리의 升降運動을 말한다.

다섯째, 柔한 부위는 血氣, 剛한 부위는 氣血에 속한다. 즉, 腹部나 새끼손가락같이 柔한 부위는 血氣, 胸部나 엄지손가락같이 剛한 부위는 氣血에 속한다고 보았다.

여섯째, 下體는 血氣를 위주로, 上體는 氣血을 위주로 되어 있다.

일곱째, 血氣는 肝腎, 氣血은 心肺를 위주로 한다. 그리고 心肺에 속한 上肢는 氣血, 肝腎에 속한 下肢는 血氣라고 보았다.

여덟째, 血氣는 先天, 氣血은 後天에 속한다.

아홉째, 氣血은 前後로 自轉運動, 血氣는 側面으로 公轉運動을 위주로 한다.

열째, 氣血은 奇經八脈, 血氣는 十二經脈을 위주로 본다.

열한 번째, 좌측은 血氣, 우측은 氣血에 속한다.

이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1. 芝山의 氣血·血氣 비교

氣血	氣先血後	秋冬之象	下降	(手) 浮沈	(剛) 胸部	上體	心肺	後天	自轉	奇經八脈	右側	男 天垂
血氣	血先氣後	春夏之象	上升	(足) 升降	(柔) 腹部	下體	肝腎	先天	公轉	十二經脈	左側	女 地積

13) 유장림 지음. 위의 책. p. 225.

14) 박준규. 『형상의학의 인체관』. 大韓傳統韓醫學會誌. 2019;20(1):310.

15) 이렇게 보면 ‘形神論’, ‘形氣論’, ‘形象論’에 비해 몸의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6) 대한형상의학회. 『芝山形象醫學概論』. 서울:지산출판사. 2017:74-78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4. 芝山の ‘氣血’과 ‘血氣’ 임상례

이번에는 芝山の 실제 임상례를 통해 ‘氣血’과 ‘血氣’의 개념을 어떻게 임상에 적용했는지 살펴보자.

1) 氣血의 임상례

【임상례 1】¹⁷⁾

○ 남자 59세, 양명형, ① 左足 一趾痛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하였고 간혹 붉어지기도 한다. ② 근시, 난시로 안경을 썼는데 전에 斜視 수술을 받았다. ③ 피로하고 自汗, 盜汗, 耳鳴, 眩暈이 있다. ④ 腸에 가스가 차고 大便이 무르며 잦다.

○ 加味四物湯

○ 손가락·발가락에 이상이 있는 것은 經絡病이다. 氣血의 升降이 나빠서 基準과 順次가 맞지 않아 身體가 權衡을 잃은 것이다. 그러므로 氣血의 均衡을 잡아주기 위해 『洪家定診秘傳』에 있는 加味四物湯을 투여하였다.

【임상례 2】¹⁸⁾

○ 52세 여성, 눈이 陷沒되어 있으며 눈물이 잘 나온다. 下肢痛.

○ 獨活寄生湯

○ 눈물이 나오는 것과 허리 다리가 아픈 것은 肝腎이 약해서 氣血이 不足하여 오는 것이다.

【임상례 3】¹⁹⁾

○ 6세 여아, 알레르기성 皮膚炎, 목에 가래가 많이 낀다.

○ 八物湯

○ 이 아이는 氣血이 나빠서 病이 온 경우이다. 氣血이 皮肉筋骨을 滋養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皮膚病도 올 수 있다. 여기에서 八物湯은 皮膚를 두텁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임상례 4】²⁰⁾

○ 10세 남아, 腸重疊이 되어 手術을 받은 이후 左側으

로 口眼喎斜가 옴.

○ 四君子湯 合 二陳湯 加 竹瀝薑汁·白芥子

○ 氣血이 衡平을 잃어버려 생긴 現象이다. 癱瘓으로 보고 藥을 써줬는데 형틀에 갈을 대어 手術을 받으면 形이 무너지는 法이다.

【고찰】

【임상례 1】은 손가락·발가락의 이상은 경락병이며, 이는 氣血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상례 2】, 【임상례 3】, 【임상례 4】는 허리, 다리, 피육근골, 얼굴에 나타나는 증상을 氣血病으로 보고 치료하고 있다.

2) 血氣의 임상례

【임상례 5】²¹⁾

○ 33세 여자, 産後 8個月, 눈썹이 진하게 생김. 잠을 자기 전에 寒熱이 있고 차멀미를 하며 누구에게 쫓기듯 가슴이 답답하고 발목 무릎까지 바람이 지나는 듯하며 손발이 저리고 허리에서 등까지 아프다.

○ 二陳湯 合 四物湯 加 桃仁紅花·白芥子·竹瀝生薑汁

○ 눈썹이 진한 것으로 보아 血氣가 盛하여 12經脈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손발이 저리게 되어 있고 목에 가래가 끼고 잘 울며 성깔이 있을 것이다. 氣血은 前後로 돌고 血氣는 側面으로 돈다. 女子는 側面이 發達하고, 男子는 前後가 發達했다.

【임상례 6】²²⁾

○ 남자 78세, 膽體, 이마와 볼에 주름이 깊게 파였다. 5년 전부터 몸이 휘청거리서 걷기가 힘들고 左膝 이하가 불편하며 말이 둔하다.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았다.

○ 黃芪十補湯

○ 인체는 血氣가 충만해야 下體를 쓸 수 있다. 이 환자는 地氣가 부족하여 血氣를 기르지 못해서 몸을 가누는 것이 어려우므로 黃芪十補湯을 써야 한다.

【임상례 7】²³⁾

17)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II』, 서울:芝山出版社. 1999:115-116.

18)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 서울:芝山出版社. 1996:266.

19)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 서울:芝山出版社. 1997:53.

20)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 서울:芝山出版社. 1997:206-207.

21)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 서울:芝山出版社. 1996:284.

22)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II』, 서울:芝山出版社. 1999:394-395.

○ 15歲의 男學生, 木體, 눈썹이 길다, 山根 아래 흉터가 있다.

○ ① 한쪽의 발목이 길다. ② 양쪽 다리가 가늘다. ③ 오른쪽 발목을 屈伸하지 못해 걷지를 못한다. (病院에서 手術을 하자고 해서 韓方治療를 위하여 來院)

○ 滋血養筋湯

○ 눈썹이 길다는 것은 血氣가 盛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血氣가 너무 盛해도 問題가 된다. 즉, 濕熱에 의해 다리가 나빠질 수도 있다. 여기서는 이것이 포인트가 된다. 즉, 血氣가 너무 지나쳐서 그렇다고 본다. 處方은 滋血養筋湯을 應用하는데, 여름에는 清燥湯을 쓴다. 血氣가 盛하다는 것은 升陽之氣가 強하다는 뜻이다. 또한 左側이 발달된 아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왼손을 잘 쓴다는 얘기이다.

【임상례 8】²⁴⁾

○ 남자 16세, 눈썹이 진하다.

○ ① 불안하면 不眠症이 오고, 頭汗出이 있으며 눈이 빠지는 듯하다. ② 소화가 어렵다. ③ 전에 項強症이 있었다.

○ 養血四物湯

○ 눈썹이 진하면 少氣多血하다. 즉, 血氣가 盛하니 머리가 좋고 노력을 과다하게 한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

【고찰】

【임상례 5】, 【임상례 7】, 【임상례 8】은 눈썹이 진한 것을 보고 血氣가 盛해서 오는 병을 알 수 있다. 눈썹은 少氣多血한 부위이므로 눈썹이 진하다는 것을 보고 血氣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상례 6】은 하체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地氣가 부족하여 血氣를 기르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여기서 黃芪十補湯을 선택한 이유는 ‘補虛勞 養血氣’하는 주치에 있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氣血’이란 용어의 인체론적인 물음에서 출발하여 ‘氣血’과 ‘血氣’는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과 芝山을

통해 그 이론과 실제 임상례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용어 정립의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더불어 세계관·인체관에 대한 공부도 필요함을 함께 느꼈다. 당연한 것에 대한 사전적 궁금함도 필요하지만, 세계관·인체관에 기초한 궁극적인 질문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논문을 쓰면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한의학의 인체관은 二元的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二元을 천지·우주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천지 또는 음양이라는 말로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체 차원에서 볼 때, 『內經』에서는 ‘形神’, 『東醫寶鑑』에서는 ‘形氣’, 형상 의학에서는 ‘形象’으로 대변하고 있다. 이는 모두 對待의 원리를 내포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심오한 철학적 원리가 있다고 해도, 보다 직관적이고 쉬운 용어로 표현하지 못한 것은 후학으로서 아쉬울 따름이다.

한의학적으로 인체의 二元的 구조를 생각해 볼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장부와 경락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장부와 경락은 상호간에 물질대사가 이루어져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때 장부 기원의 물질과 경락 기원의 물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각각 ‘장부=혈’, ‘경락=기’를 떠올릴 수 있다. 또 ‘장부에서 경락’ 방향과 ‘경락에서 장부’ 방향으로의 두 가지 흐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장부→경락’의 흐름에 있는 물질을 ‘血氣’, ‘경락→장부’의 흐름에 있는 물질을 ‘氣血’, 이렇게 나누어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실제 의미가 있을까. 일단 이렇게 ‘氣血’과 ‘血氣’를 구분하는 문헌을 찾기 어려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상에까지 활용한 이는 芝山이 거의 유일했다. 그의 이론을 보면 다양한 관점에서 ‘氣血’과 ‘血氣’를 구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면, 임상적으로도 형상적 특징으로 ‘氣血’과 ‘血氣’를 구분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氣血과 血氣의 형상

‘氣血’의 이상을 찾을 수 있는 형상	손가락·발가락	상지	흉부
‘血氣’의 이상을 찾을 수 있는 형상	눈썹이 진함	하지	복부

이러한 芝山의 노력이 계속 연구·활용된다면 한의학의 이론이 좀 더 풍성해지고, 임상적으로도 보다 효율성을 높

23)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I』, 서울:芝山出版社. 1997:197-201.

24)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 서울:芝山出版社. 1998:384.

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氣血’과 ‘血氣’를 구분하는 노력이 이론적으로는 물론이고, 임상적으로도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13. 김남일, 김기욱,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외. 『한의학통사』. 고양:대성의학사. 2006.
14. 김남일, 김기욱,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외. 『강좌중국의학의 역사』. 고양:대성의학사. 2006.

감사의 글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grants from project KSN2022210 of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IOM), Republic of Korea.

참고문헌

1. 박준규. 「형상의학의 인체관」. 大韓傳統韓醫學會誌. 2019; 20(1):281-312.
2. 조장수. 「氣血과 血氣에 대한 形象醫學的 考察」. 대한형상의학회지. 2005;6(1):7-72.
3. 구리아마 시게히사 지음. 정우진, 권상욱 옮김. 『몸의 노래』. 서울:이음. 2013.
4. 김희정. 『몸·국가·우주 하나를 꿈꾸다』. 서울:궁리출판. 2010.
5.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 서울:芝山出版社. 1996.
6.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 서울:芝山出版社. 1997.
7.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I』. 서울:芝山出版社. 1997.
8.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 서울:芝山出版社. 1998.
9.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II』. 서울:芝山出版社. 1999.
10. 대한형상의학회. 『芝山形象醫學概論』. 서울:지산출판사. 2017.
11.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2』. 서울: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12. 유장림 지음. 조남호, 정우진, 김교빈, 성근제 옮김. 『講說黃帝內經1』. 서울:청흥. 2009.